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 강화

익산시, 자립지원전담요원 통한 프로그램 진행·자립수당 5년까지 확대

익산시는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위한 자립 정책을 강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접목해 주거, 취업 교육, 생활안정수당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통해 만 15세 이상 청소년의 연령별·수준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자립계획을 수립해 사후관리 등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립을 위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1대 1 매칭 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등의 정책도 강화한다.

여기에 청년주거임차보증금 지원과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원광대 입학 지역학생 특별장학금', 근로청년수당, 미취업 청년 지원 '드림카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장애인·주민 모두가 스포츠·여가 활동 증진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난포리 일대 공공승마장 조성

익산시가 북부권 장애인·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에 주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북부권 일반인과 장애인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가 스포츠·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 파크골프장은 용안면 칠목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시유지로 2만㎡를 활용,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나서고 있다.

국비를 포함 총 19억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화장실, 쉼터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3월 착공에 들어가 그 해 6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용안면 난포리 일대에 공공승마장을 조성하며 말 산업 육성과 주민 건강증진 의지를 구현하고 있다.

이 승마장은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며 실내·외 마장과 가상현실(VR) 체험관, 원형 마장, 승마 체험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김재훈 기자

HK산업개발, 옥구읍에 '사랑의 쌀' 나눔

군산시 옥구읍은 HK산업개발(대표 김민우)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430kg(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계층 43세대에 지원될 계획이다.

김민우 대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올해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의 쌀 나눔 활동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K산업개발은 지난 1월과 4월에 관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쌀 400kg을 기탁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세계교육문화원, 폭염 속 취약계층에 선풍기 지원

군산시 수송동은 세계교육문화원 WECA(전북지부 지부장 최민국)이 폭염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풍기 5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세계교육문화원 WECA는 교육부 소관 NGO단체로, 취약계층 교육지원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며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민국 전북지부 지부장은"장기화된 코로나19와 폭염 속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이 나눔을 통해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필 수송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일에 동참해 감사하다"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 구축

군산대학교 박물관,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 기관' 재선정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2018년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아 2021년까지 활동하였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재선정되어 2024년까지 인증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인증기관 재선정은 대학 박물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또한 군산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유일한 것이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군산대학교 박물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박물관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안정성있는 운영으로 교육기부를 통한 지역의 진로체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군산시보건소는 원광대학교와 함께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건강 문제 원인 등을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생산 활용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 방법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하며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900명이다.

조사에 앞서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원 6명을 채용해 조사항목에 대한 교육과 개인정보 비밀보장, 정보누설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등 관련 교육을 마쳤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8월 중 지역사회건강조사 가구선정 통지서를 우편 발송 후 지역사회건강조사원 6명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항목으로는 건강행태(흡연, 음주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이환(병에 걸림), 삶의 질, 코로나19 감염증 등 18개 영역 163개 문항을 조사하며, 조사대상 1명당 20~30분 정도 소요되고,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1만원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번 건강조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조사를 수행하고자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모두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마치고 조사원,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경암동 방역안전 감시단 코로나방역 총력

군산시 경암동은 최근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암동은 공용버스터미널 2개소(고속, 시외)와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철길마을에 주말이면 많은 외래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외지에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방역안전감시단은 평소에도 주기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해 주요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덕일 동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코로나방역 안심 식당 지정 업소 모집

익산시는 코로나방역 안심식당 지정 업소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방역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수저 등 위생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조건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지정 우선순위는 1순위 중앙시장 침수 피해 업소, 2순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모범음식점, 3순위 대물림 맛집 및 향토음식점, 4순위 선착순 접수자다.

신청은 지정 신청서와 참여서약서를 첨부해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83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에 지정되면 개인 앞접시, 위생 국자 등 8종의 위생용품이 지원된다. /김재훈 기자